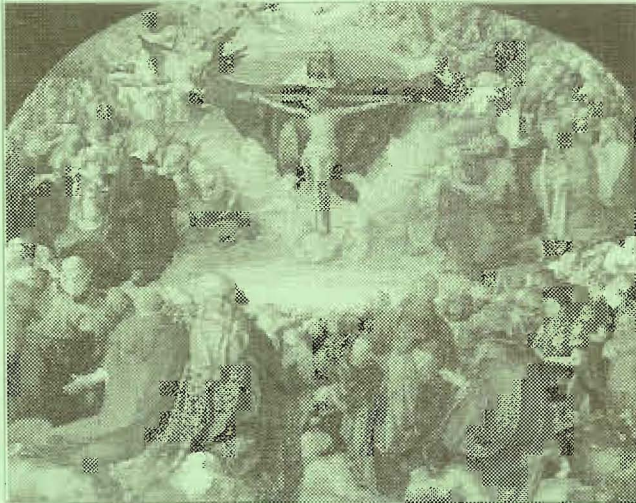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제32권 52호(나해) 2012-11-25

## [묵상]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빌라도와  
“누가 유대인들의 임금인가?” 에 대하여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신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이든  
의미 없는 논쟁일 수밖에 없는 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달라질게 없다는 것.  
빌라도가 이토록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도 우리처럼  
다른 임금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영터리 임금임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각자의 임금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르는 걸까 못 바꾸는 걸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참된 임금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막고 있는 우리는  
진리 아닌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화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 미사

|     |                              |                                |
|-----|------------------------------|--------------------------------|
| 수요일 | 저녁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br>성경공부(그룹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시간(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병자영성체(1째주)<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br>울뜨레아(4째주)                                                                                                               | 저녁미사후<br>오전 10: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그룹반)<br>M.E. Sharing(3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br>소년 레지오 마리아<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전 9: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메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대견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br>• 요셉회 • 제대회<br>-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45<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주정애 & 김재철, 이진행 힐라리오                                                                                                                                                                                                                                                                                                                                                                         |
| 특전미사        | (생)오예슬 미카엘라 & 가족,<br>이승빈 토마스 야퀴나스                                                                                                                                                                                                                                                                                                                                                              |
| 주 일<br>낮 미사 | (연)김종길 바오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br>고준희 제임스, 박영준 안토니오, 박정이,<br>조순철 카타리나, 송봉규 요셉 & 송공랑 카타리나,<br>전귀덕 & 전임주 안나, 이경용 야고보,<br>헬렌 이케, 이진행 힐라리오, 신현태, 이정희,<br>한창수 시몬, 전시웅 요한,<br>낙태된 영혼들<br><br>(생)이서하 아우구스티노, 이윤조 글라라, 엄영숙 마리아,<br>변혜경 올리아나, 우영희 엘리사벳 & 이기숙 엘리사벳,<br>박중웅 시몬, 박현주 카브리니, 최옥희 테레사 가정,<br>최제인 & 최캐서린, 김희복 아네스,<br>지재환 프란치스코 & 김린다 안나,<br>남명자 테레사, 홍정순 세실리아,<br>차인수 안드레아, 홍석인 체칠리아,<br>이장환 마르피노 사제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다니엘 예언서(Daniel) 7,13-14

화답송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1,5ㄱ-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 음 요한(John) 18,33ㄴ-37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입당 | 왕이신 나의 하느님      | 207   | 207  |
| 봉헌 | 255             | 255   | 279  |
| 성체 | You Raise Me Up | 280   | 287  |
| 파견 | 기뻐하며 왕께         | 207   | 238  |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더욱 온전한 전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과 구체적 제의들  
다) 하느님 말씀의 장엄한 선포

「미사 독서 목록 지침」(OrdoLectionum Missae)을 따르면서, 특히 대축일에 하느님의 말씀, 특히 복음을 노래로 선포함으로써 그 선포를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라는 시작 인사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끝맺음은, 봉독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노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 그리스도교 성전 안의 하느님 말씀

68).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수단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건물들에서는 전례 규범과 건축 규범들을 존중하면서 반드시 음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교들은 성당들을 지을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그것이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묵상과 성찬례 거행에 적합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들은 전례 행위가 없을 때에도 웅변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전례적 장소인 독서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독서대는 말씀 전례 때에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눈에 잘 띄이는 곳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을 것이며, 제대와 미적인 조화를 이루는 조형적인 요소로 되어 있어 말씀과 성찬의 이중적 식탁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독서대에서는 독서, 화답 시편, 파스카 찬송을 선포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강론과 보편 지향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성당 안에, 전례 거행이 없을 때에도 성경을 모셔 들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그리스도교 성당 안에서 눈에 보이게 공경받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지만, 성체를 모시고 있는 감실은 마땅히 중심적 위치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 전례에서 성경 본문들의 배타성

69).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회의 전례 규범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성경 독서는 결코 다른 본문들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다른 본문이 사목적 또는 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계속>



## 봉사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직

가난과 고통에 짓눌린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우리는 “가난한 이와 병자들의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 구부러진 허리와 주름투성이 수녀님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1997년 가을, 테레사 수녀님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 언론은 “살아있는 성녀, 만인의 어머니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었습니

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와 이렇게 따졌답니다. “당신이 믿는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왜 세상에는 저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거죠?” 수녀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누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가난한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요?” 이번에도 수녀님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씩 나누면 됩니다.”

생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의 명함이라며 사람들에게 나눠준 조그만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심문을받으십니다. 유다 최고의회 의원들은 밤새 예수님을 심문하고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단

죄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 총독만이 사형선고와 집행을 할 수 있었기에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압송하여 총독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지닌 분이시며, 그 왕권도 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수치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이 재판에서 왕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사랑의 봉사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사랑의 진리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이번주 전례봉사가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권순길<br>채칠리아 | 이재용<br>안드레아  |
| 제1독서자 | 박민환<br>미카엘     | 김교복<br>레오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최보나<br>보나      | 서용숙<br>에스텔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P.V.<br>1반   |

### 다음주 전례봉사가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이은지<br>수산나     | 김숙희<br>유소사 세실리아 | 신종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송현식<br>바오로      | 모은기<br>다두     |
| 제2독서자 | 곽수진<br>보나      | 정광미<br>프란치스카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1,2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늘 11월 25일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믿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걸어온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되돌아보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12월2일 대림 제1주일을 겸손되이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전례력은 '다해'를 따르게 됩니다.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11월24일(토) 오후 6시 7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오예슬 미카엘라 ● 이승빈 토마스 아퀴나스
- 이서하 아우구스티노 ● 최시원 요한바오로
- 김재익 야고보 ● 김지인 에우제니오 ● 박채울 레오

◆ 추수감사절 연합2부행사 '우리성당 스타일' 응원상 수상  
백삼위주일학교학생들과 교우 103명(본당 신부님·수녀님 포함)이 참가한 남가주 한인가톨릭연합미사 2부행사에서 우리 본당이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과 특히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양엄회, 대건회, 주일학교, 청년회, 성모회 등 여러 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12월 성모신심미사는 둘째 토요일(8일)에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 : 오전 8시30분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12월2일(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우들께선 미리 준비하시어 이날 따로 마련된 봉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론청년회 냉동만두/왕전빵 판매

- 일시 : 12월1일 토요일전미사/2일 주일미사후(아침,학생,낮)
- 품목 : 냉동만두, 냉동 왕전빵(빨리 매진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당 청년회장 ☎(310)508-2123

◆ 대림환 만들기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앞두고 본당 제대회에 서 교우들과 함께 '대림환'을 만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 : 선착순 30명
- 만드는 날짜 : 12월1일(토) 오전 11시30분 강당
- 재료비 : \$20
- 준비물 : 가위
- 문의 : 윤경옥 실비아 제대회장 ☎(909)557-7490

◆ 안나회 12월모임 임시변경

- 일시 : 12월2일(첫째주일) 낮 11시 미사후 회의실
- 문의 : 한루시아 ☎(310)738-4387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5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5000 Clark Av. Lakewood, CA 90712)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추수감사절 연휴로 오늘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오늘 주일(25일)은 추수감사절이 낀 연휴로 인해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25일(주일) : 토런스 남2/3반(김밥, 떡+콩나물국 \$4)  
주일학교(수업 없음)
- 12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주일학교(4학년 햄버거)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 교무금            | 강미순 | 고천용 | 국세찬  | 금동군  | 김원호 | 김일선 |
|----------------|-----|-----|------|------|-----|-----|
|                | 김재희 | 김철민 | 김학겸  | 박정자  | 박진수 | 서성용 |
| 성전헌금           | 송영미 | 송호창 | 신순철  | 안태갑  | 엄세종 | 오태환 |
|                | 원건희 | 육근주 | 이미경  | 이우성  | 이재승 | 익명  |
|                | 장춘수 | 정남형 | 정상봉  | 조영희  | 주대중 | 최원석 |
|                | 최태훈 | 최현찬 | 최희숙  | 송마이클 |     |     |
| 합계 : \$4,020   |     |     |      |      |     |     |
| 미사헌금 : \$3,099 |     |     |      |      |     |     |
|                | 강미순 | 고천용 | 국세찬  | 금동군  | 김원호 | 김재희 |
|                | 김철민 | 김학겸 | 서성용  | 송호창  | 신순철 | 안태갑 |
|                | 엄세종 | 오세원 | 오태환  | 원건희  | 이우성 | 이일길 |
|                | 익명  | 장춘수 | 정상봉  | 조영희  | 주대중 | 최원석 |
|                | 최태훈 | 최현찬 | 송마이클 |      |     |     |
|                |     |     |      |      |     |     |
| 합계 : \$3,100   |     |     |      |      |     |     |
| 감사헌금 : 박이레네    |     |     |      |      |     |     |



## 공지사항

### ◆ 예비자교리 및 신자재교육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 장소 : 성전(신자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되는 교리시간에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상분 콜링(전화)카드 판매

- 상분(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한글-영어 합본 상장애식서 : \$15 \*사무실에서 판매

### ◆ 미주가톨릭 방송(KCBC) 방송시간 안내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9시 라디오서울(AM 1650)
- 매주 일요일 아침 6시~8시 우리방송(AM 1230)
- 방송국 주소 : LA 3435 Wilshire Bl. #2780  
☎(213)220-1245

### 잠시 머무르며...

“그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혈벗으신 그분을 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식탁이 금으로 된 잔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으로 죽으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 남가주 소식

### ◆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기도과정 프로그램

- 매일 30분씩 14주 기도과정, 매일 1시간씩 9개월 기도과정
- 마감 : 11월30일(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CLC)
- 문의 : 정도로테아 ☎(818)764-8950

### ◆ 남가주꾸르실로 송년의 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 일시 : 12월1일(토) 오후 6시
- 장소 : LA 성바오로 성당(1920 S. Bronson Ave. LA)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백삼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서울대교구 절두산순교성지 주관 '제3회 가톨릭미술공모전'

- 응모자격 : 국적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만19세 이상인자
- 주제 : 하느님의 종 125위(한국순교자 103위성인시성식이후 125위 시복시성 접수 절차대기중)
- 서류접수 : 2013년 7월10일~17일
- 실물접수 : 2013년 8월7일~14일
- 문의 : 주관처 절두산순교성지(www.jeoldusan.or.kr)

##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                                            |
|-----------------------------------|-----|--------------------------|--------------------------------------------|
| 차 장                               |     |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                                            |
| 차 장                               |     |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                                            |
| 구역/장                              | 번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br>11/9(금) 오후 7시 북해루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김막달레나, 욕울리아 539-3377<br>11/10(토) 오후 7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신순철 가브리엘 494-1391<br>11/13(화) 오후 7시30분 반미사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713-7779  | 1   | 이진향 아베스<br>989-0366      | 김충섭 마틴 533-1435<br>11/18(주일) 오후 5시         |
|                                   | 2   | 유선영 클라라<br>424-241-5988  |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br>11/17(토) 오후 6시     |
|                                   | 3   | 신경희 클라라<br>424-903-5051  | 박명순 안나 968-7600<br>11/9(금) 오전 10시30분       |
| 토런스 남<br>이희경<br>크리스티나<br>818-6903 | 1   | 오창애 안나<br>974-2857       | 남구역 합동 반모임<br>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합동 반모임                                     |
|                                   | 3   | 전하현 마리아<br>213-550-6653  | 합동 반모임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br>11/10(토) 오후 7시 성당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이정자<br>아그네스<br>784-0585  | 1/2 | 주영애 겐마<br>818-640-3656   |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br>11/10(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다<br>384-3289     |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br>11/16(금) 오후 7시        |
|                                   | 2   | 금유미 크레센시아<br>482-9108    | 김관기 라파엘 678-8222<br>11/20(화) 오후 7시 반미사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김병록 요셉 938-6807<br>11/6(화) 오후 7시 반미사       |
|                                   | 4   | 이귀란 아베스<br>617-3568      | 이귀란 아베스 617-3568<br>11/13(화) 오전 10시30분     |

### 이번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회

오후 1시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gov 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

베이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이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mailto:support@paramounttariff.com)



##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 4.29

1.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신앙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발표한 자의 교서에서 '신앙의 해'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복돋우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개발전할 필요가 있다.”(「믿음의 문」, 2항)는 점을 제시하셨습니다.
2.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에게 라틴 말 성경 번역가로 알려진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는 하느님의 권능도, 그분의 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이사야 주해」, 서문) 만약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란다면, 바로 성경을 펴 들고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은총론의 박사라 불리는 교회 학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회심의 시기에 겪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고백록」, 제8권, 12장) 이곳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를 듣자마자 성경을 집어 들고 읽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바로 눈에 들어온 로마서 구절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에 확신을 갖고 영적 여정에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어 늘 새로운 명령으로 교회에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기쁨과 신앙 전수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더욱 힘찬 노력이 필요합니다.”(「믿음의 문」, 7항)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의 사명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데 복음 선포가 왜 또 필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의 사명은 단한 번의 선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더욱 필요한 복음 선포일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신앙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먼저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자주 읽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일찍이 우리 신앙 선조들은 천주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일과 축일 미사에서 읽는 성경 말씀과 약간의 설명을 첨가한 한글판 「성경직해광익」을 통해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말로 새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

하게 성경 말씀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에 남다른 열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열원에 응답하고자 한국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성경 공부 사도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하게 준비된 성경 공부 사도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릴 도움을 곧바로 받을 수 있으며, 성경 묵상을 통해서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여정을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성경말씀을 쉽게 가까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만 살펴봐도 우리는 그들의 불행한 현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모국어 성경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쉽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을 접하여 읽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을 좀 더 깊이 헤아리고 싶어도 옆에서 가르쳐 줄 사람이나 다양한 성경 공부 사도직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아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공부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첫발조차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한국 교회는 아시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시아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둘러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아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 가도록 먼저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복음 선포의 방식일 것입니다.

7. 우리는 '신앙의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 독서,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고, 그 만남에서 깊은 확신과 실질적인 힘을 얻어 신앙 쇄신의 영적 여정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아시아의 가톨릭 신앙인들이 성경독서,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를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형우 아빠스